



Jul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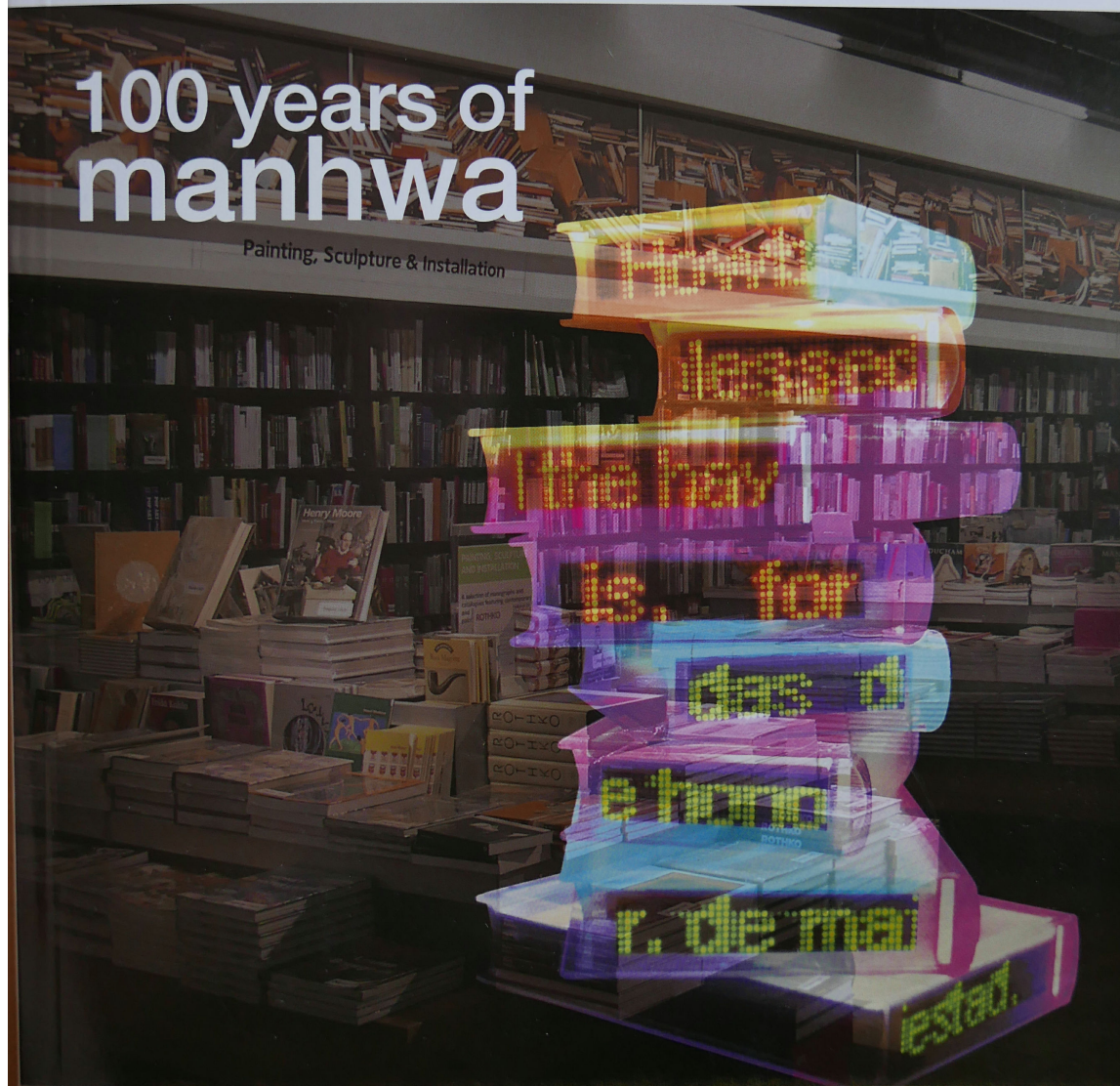
294

Monthly Art Magazine
www.monthlyart.com

월간미술

100 years of manhwa

Painting, Sculpture & Installation



53rd Venice Biennale

미술로 만드는 세상, 베니스비엔날레

장 백이치
(베드 카우치)
캔버스에 유채
210×400cm 2008

니를 배반하는 딱딱한 스틸이고, 그 때문에 더욱 짙어지는 애뜻함과도 같은 것이다.

그의 작품을 시대별로 회고할 수 있었던 <시대의 초상>과 흑백 누드화의 <흑백거울>은 우리 사회를 신랄하게 바라보며 거침없이 뱉어내는 '나쁜 남자'의 고독과 시니컬한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흔히 1980년대 참여했던 '현실과 발언' 활동으로 인해 소위 '민중미술' 작가로 구분되기도 했다. 당시 이 그룹은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며 '재현을 통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미술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활동했고, 한국 근현대사와 같은 거대담론을 주로 서사 구조의 재현 방식을 통해 표현했다. 그러나 안창홍은 오히려 그 시대와 상황을 철저히 개인주의적 화법을 선택하여 담아냈다.

그는 억눌린 개인의 심리를 강간, 마약, 가면 놀이 같은 자극적인 소재와 플라스틱 같은 천박한 색깔로 천연덕스럽게 발표했다. 이는 당시 개발 독재에 짓눌린 사람들의 탈출구 없는 황폐한 일상과 불안을 병적인 잔혹함을 통해 나타낸 것이며, 사회적 공포와 개인의 비극을 화면에 극단적으로 배설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가족사진> 시리즈들은 직접적인 현실 비판에 몰두하던 당시 진영에서는 분명히 '강철대오'를 벗어나 내는 내밀하고 개인적인 독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에서 현대문화의 하나의 징후로서 눈을 파내 버린 가족사진을 통해 극단적인 인간관계와 병든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비극적인 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했다. 유행처럼 추억의 장소에 떠다니는 이들의 관계는 이미 박제된 기억 속에서 더 이상 가족의 기념사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혼에 드리운 상처에 대한 암시이거나, 척박한 시간을 고증하는 한 시대의 우울한 초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흑백으로 기록한 시대의 거울

그는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와 거기서 비롯된 사회의 근원적인 불안과 정신의 괴폐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또한 그는 퇴폐적인 에로티시즘과 죽음의 우울한 합주를 화면 속에 연우하며 현대도시의 폭력성과 소외된 개인의 비극을 표현했다. <헤어스타일 컬렉션>은 미장원에 있는 헤어스타일 광고에 착안하여 그린 작품이다. 그림 속의 똑같은 얼굴의 여성들은 단지 머리모양의 변형에 의해서만 정체성이 바뀌고 있으며, 해골로 인해 미소는 맹목적이고 유산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 여인의 입가에 피진 뿔스틱 자국과 절단된 목은 열매 쥔 한 사마귀 패스의 제물이 되었었던 소외된 여성들을



떠올리게 한다. 안창홍은 이 작품을 통해 현대 도시의 메마른 인명성과 우리 사회의 폭력과 단절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괴폐함과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왜소화된 신체들(특히 얼굴)은 항상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이 시선의 문제는 안창홍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검-치>에서도 흐릿하게 확대된 조선광복군의 사진 안에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엄숙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교과서에 실린 조선광복군의 기념사진을 차용하여,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 앞에 젊음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비장한 청년들의 얼굴에 안창홍은 가벼운 붓질과 경박한 색으로 낙서를 했다. 그리고 경쾌한 날갯짓의 하얀 나비들을 여기저기 띄어 올렸다. 그는 "검-치"하며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그들을 흰 이를 드러내며 역지로 웃게 만들었지만,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결국 몇몇 권력자들에게 희생된 개인이며 불난의 나비처럼 덧없이 시간속으로 사라진 존재들일뿐이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개인의 회생을 두고 권력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종되었다는 그 우울함을, 그는 오히려 우스개 소리처럼 간죽대는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는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 반복되고 있다. 사진 속의 시선들은 말을 건다. '현재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온전한 주인인가?' 하고, 이처럼 직접적인 시선들이 주로 <사이보그> 등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49인의 명상>이나 <자연사 박물관> 연작에서는 내재적인 시선은 우리의 머릿속을 꿰뚫기도 한다. <자연사 박물관> 연작은 자연을 통해 인간성의 비극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안창홍의 자연은 한때 현실 비판 작가들이 자연이 주는 안식과 평화로움에 관심을 가

졌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는 작업실 뜰이나 수몰속에서 찾아낸 곤충, 식물, 새, 오브제 등 버려진 주검들의 전례를 그렸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조차 그의 스펙트럼 안에서는 시니컬한 카리스마 속에서 생명의 빛을 소진하게 된다. 삶의 어둠과 미이라처럼 각인된 주변 물질들의 주검을 검은 아크릴릭 물감과 대리석가루를 섞어서, 규격이 똑 같은 캔버스에 하나씩 그리면서 그는 화면에 저절로 찍힌 프린트(화선)같은 손의 느낌을 억제하면서, 박물관의 수검물처럼 그들을 새로운 시간속의 무덤에 가두었다. 살아있는 생물을 장남삼아 천천히 죽이는 아이들의 천진한 잔인함을 무채색 화면으로 위장했다고 치더라도, 화면 속의 미키마우스 두개 풀이나 팔라 비틀어진 지렁이는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인간성의 비극에 대한 화두를 숨기지 못하고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숨겨진 잔혹함과 어우러진 빛 바랜 자연과의 조우는 분명 그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 매력이 최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재현되고 있다. 건장문제로 사선(死線)을 넘어 본 그는 이번엔 <베드 카우치> 연작을 선보였다. 여기서 그의 천박함 정도로 화려한 색감과 현실을 활활 태우는 시니컬함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전히 금기시하는 것들을 천연덕스럽게 표현해내는 안창홍다운 면이 커다란 화면에 흑백의 색감으로 우아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사이보그> 연작에서 선보였던 응시의 불편함과 연필의 후연이 주는 편안함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부조화가 이 시리즈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것이다. 전시장을 압도하는 대형 흑백 누드화의 인물들은 베드 카우치에 누워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안창홍이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특히 <베드 카우치 5>는 이웃 농사꾼이다. 그는 생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상상도 못했겠지만, 작가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스스럼없이 웃을 벗었다고 한다. 전문 모델이 아닌 어색한 모습은 사실 그동안 누드화가 보여주는 미묘한 관능미와는 애당초 거리를 둔 것이다. 젊은 여성조차도, 똑바로 화면을 응시하며 우리가 누드화를 보면서 누려야 할 예술을 빚자할 수준높은 관음증을 도대체 허락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어떻게 물어본다. "난 다 벗었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가 모델의 어색함에 대한 안창홍의 유려한 묘사력과 표현력은 그들과 작가 사이의 두터운 신뢰감을 과시하며, 불편한 응시의 벽 앞에서 오히려 정당하게 감상해야 할 감상자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든다. 초상의 기원이 이집트 왕의 죽은 육신을 기념한 신성함에서 비롯되었고, 르네상스와 근대를 거쳐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되어왔다고 할지라도, 관능과 관음이 거세된 누드화는 또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이 엉뚱하고 개성 강한 모델들은 단지 <베드 카우치> 시리즈로 명명될 뿐이다. 이들의 이름의 빛은 몸과 똑바른 응시는 교섭되어왔을 불광스러운 - 나쁘지만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 아웃사이더 안창홍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이 사회의 현실과 개인의 존재 가치를 긴 세월 동안 이야기해 왔다. 그 중심에는 역설적인 모양새를 위장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정도의 애정 고백이라면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지만, 이 나쁜 남자가 오랜 세월 한결같이 내미는 한 다발 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 그가 나쁜 남자일수록 그의 오랜 순정은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

안창홍은 1953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76년 부산 현대미술에서 동양화과 2년을 수학하고 1981년 부산 공간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지금까지 스물여섯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1994년까지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0),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1)을 수상했다.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0),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1)을 수상했다.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0), 제1회 부산미술대전(2001)을 수상했다.

(베드 카우치 5) (오른쪽)
캔버스에 유채
210×400cm 2008
(왼쪽을 보십시오)
캔버스에 아크릴
45×122cm 2008